

‘단독국회’ 상임위 첫날 공전·파행

비정규직법 여·야·노동계 갈등 본회의 무산 민주 문방위 회의장 농성 미디어법 싸고 전운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으나 첫날부터 곳곳에서 공전과 충돌이 벌어지는 등 파행됐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이날 12개 상임위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의 실력 저지 및 참석 거부로 무산되거나 ‘반쪽’ 운영된 것이 다.

특히 여야는 애초 이날 오후 열린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합의안이 도출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야·노동계 간 점점 찾기에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도 무산됐다.

나아가 핵심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다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출입구를 원천봉쇄해 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부터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점거농성을 해온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문방위로 이동했으며, 대기 중이던 20여명의 보좌진과 함께 의자 등으로 회의장 입구를 봉쇄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방위 회의장 앞에 속속 도착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강행하지 않은 데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회의를 강행하지 않았다”고 밝혀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은 3월 여야간 약속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이다.

비정규직법을 다룰 환경노동위는 추미애 위원장의 사회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1분 개회했지만 2분만인 12시3분에 산회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회의에서 “3당 간사는 일정을 논의해서 오고, 그 후에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또 법제사법위, 교육과학기술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 등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 민주당 불참 속에 개회됐지만, 정작 계류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는 공전을 이어갔다.

각 상임위에서는 “법안 심의를 안 하는 것은 위원장이 국회를 방기하는 것”, “사우더라도 국회는 열면서 싸워야 한다” 등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토만 이어졌다.

일부 상임위에는 민주당 간사들이 참석, “한나라당 단독 국회에 반대하다”,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대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경위, 교과위, 복지위 등은 이날 오전 소모적 공방만 벌인 채 산회 또

는 정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그 중에서도 법안 심의가 아닌 소관 부처 등의 현안 보고가 예정된 상임위는 ‘반쪽 상임위’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기획재정위는 윤준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재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국토해양위는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부고속철 점검 근원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행정안전위는 이달근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안부 업무현황보고를, 외교통상통일위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실무회담 관련 보고를 각각 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등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29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 회의실 문 앞을 점거하고 개회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주류 돼 차기 대선 출마할 것”

정몽준 최고 오늘 니주 방문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29일 당의 주류가 돼 차기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발간된 ‘월간중앙’ 7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내가 무소속 의원을 오래 하지 않았느냐, 이제 당에 들어와 보니 주류가 돼야겠다는 생



각이 든다”며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향후 FIFA(국제축구연맹) 회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중 어느 쪽에 출마할지를 묻는 질문에 “더 어렵고 힘든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이 ‘어렵고 힘들지만 해보라’고 그러지 않나 싶다.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해 볼 생각”이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김성조 정책위의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등과 함께 30일 니주 영산지구와 함평2지구를 방문, ‘4대강 살리기 정책 탐방’에 나선다. /*박지경기자 jkpark@

작은 비석엔 ‘대통령 노무현’ 6글자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에 담긴 ‘아주 작은 비석’의 형태와 그곳에 새길 글자가 정해졌다.

비석은 키가 낮고 넓직한 ‘너럭바위’에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여섯글자만 새겨진다.

‘고 노 전 대통령의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는 29일 오후 유홍준 위원장(전 문화재청장) 명의로 낸 보도 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아주 작은 비석’은 높이 40

cm 정도의 키가 낮고 넓직한 너럭바위 형태의 자연석에 ‘대통령 노무현’ 6글자만 새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립위는 “(이 비석에 새길) 글씨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이 썼다”고 덧붙였다. 건립위는 또 “화강한 유골은 안장하되 봉분은 만들지 않겠다는 유족의 뜻에 따라 (유골은) 지하에 안치하고 지상에는 자연석을 얹어 봉분 겸 비석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보리 등 할당관세 제외 300억 추가 부담”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사진)은 29일 정부가 지난 29일 할당관세 제외 품목에서 보리와 귀리 등 사료용 8개를 제외함에 따라 농민들이 300여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며 “조례안을 폐기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택시조례’ 놓고 민주 내분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제외 품목은 사료용 품목을 포함, 밀·밀가루·LNG 등 32개 품목으로 수입 생필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 농민과 서민 등의 피해만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농어업, 농어촌은 42조원에 달하는 농어가부채와 아무런 대책 없는 한·미, 한·EU FTA 추진으로 회복 불능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부채 감세를 폐지하고 오히려 농어가 부채, 한미FTA 국내보완대책과 비정규직 대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회가 마을택시 조례 개정을 놓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간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나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관근 경제건설위원장은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민주당 나주시의회가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정정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무소속 의원들이 주장하는 마을택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여지가 많아 대체안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택시 할인쿠폰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위원장이 직권으로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시장 ‘일부 교수 추방해야’

○박광대 광주시장이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교수들이 광주가 변화하는 줄 모르고 10년전, 20년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교수들은 잠적인 존재”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광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바깥 세상도 모른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은 광주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직접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이날 청내 방송으로 모든 공무원이 청취하는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쏟아내자, 시청 안팎에서는 최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광주시정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일부 교수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빛물관리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민주·동구1·사진)은 29일 빛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빛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광주시 빛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제180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빛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인 ‘빛물관리시설’을 설치하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거·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무등산 조례’ 내달 13일 표결

○전남 광천이 광평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등산 조례)이 내달 13일 광주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의결보류된 무등산 조례를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며 “기립 투표를 할지, 무기명 투표를 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당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회가 7월 정례회를 통해 무기명 투표를 처리하려는 것은 스스로 무소속과 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5+3 광역경제권으로 재조정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현재 구상하는 ‘5+2 광역경제권’을 ‘5+3 광역경제권’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광역의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광역경제권을 5+2에서 5+3으로 개정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가 기존대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데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전북을 하나로 묶지 말고 광주·전남(서남권)과 전북(전북권)을 2개 권역으로 분리하는 5+3 광역경제권으로 조정해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박정욱기자 jwpark@·나주=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p>메가박스 구.현대아파트사거리 ☎1544-0600</p> <p>1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최고등급 2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3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4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5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6관 마더 (18세)/거북이 달린다 (15세) 7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8관 블러드(18세)/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12세) 9관 트레드 미 투 헬 (15세) 10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p> <p>• 무료주차 3시간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차량요금 부과</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하남점 (무의관앞편)</p> <p>1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2관 마더(18세)/아스테릭스(12세)/블록형제사기단(12세) 3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4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5관 터미네이터(15세)/링스 어드벤처(전제) 6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7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8관 신주쿠사건(18세)/박물관이 살아있다(전제) 9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퀵해킹123(15세) 10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p> <p>[상무점] 평일 오후 2000원 할인! 흥행확인가능!! 1588-7941 [상무점] 매일 팝콘 무료증정!</p>	<p>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이포스팩스 ☎ 267-7777</p> <p>1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2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3관 블록 형제 사기단(12세)/천사와 악마(16세) 4관 퀵해킹123 (15세) 5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6관 마더 (18세) 7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제) 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9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10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세)</p> <p>• 5000원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0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 OK 카쉬카드 할인 혜택</p> <p>• 하이 수영장 289-5757 • 하이 볼링장 282-0825 • 하이 팝콘 281-5000 • 하이 당구장</p>	<p>씨너스 전대 북구보리소스 건너편 ☎ 511-1000</p> <p>1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2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15세)/마더(18세) 3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4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5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전제)/여고괴담5:동반자살(15세) 6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7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북적 시무사(오전11시~오후11시)</p>	<p>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2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3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4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5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세) 6관 신주쿠사건(18세)/박물관이 살아있다(전제)</p> <p>• 무료주차 3시간 (단, 무료주차를 할때는 주차장 내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